

기업자금 경색과 경쟁시장



본회 전자산업연구소
소장 윤동훈

1 머리말

최근 은행의 예금 금리가 6% 내외로, 3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가 5%내외까지 하락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의 부담이 덜어지고 경기가 호전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 흐름은 여전히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회사채시장은 금리 하락과, 정부의 각종 안정화조치 등으로 다소 해빙 조짐이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동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중의 대규모 부동자금은 은행권에서 종합금융이나 투신사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라밖으로, 미국 연준(FRB, Federal Reserve Board)은 지난 1월중 금리를 두 번이나 대폭 내렸다. 콜금리라 할 수 있는 연방기금금리(FFR, Federal Fund

Rate)가 한달 만에 6.5%에서 5.5%로 떨어졌다.

미국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돈이 넘쳐나고 금리가 인하되는 속에서 기업은 자금경색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동향과 자금경색의 배경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시장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1월중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작년 말 6.7%에서 금년 2월 12일 현재 5%대를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투자를 기피하고 국고채를 선호하기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이처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대우그룹의 부도,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에다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 등은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공금리의 인하도 시장금리를 하락시키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금년 1월에 만도 두 차례에 걸쳐 1%포인트 연방자금금리를 인하하였고, 한국은행도 2월초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 작년 말 8.13%에서 금년 2월 12일 6.58%를 기록했다.

이 밖에 그동안 거래부진 등으로 경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CD(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의 유통수익률 등 단기 시장금리도 더불어 떨어지고 있다. <표 1>

<표 1> 주요 금리 추이

(연%, %P)

	2000.10말	11말	12말(A)	2001.1말	2.12일(B)	B-A
국고채(3년)	7.64	7.16	6.70	5.68	5.06	-1.64
회사채(3년) ¹⁾	8.59	8.35	8.13	7.38	6.49	-1.64
통안증권(1년)	7.06	7.02	6.83	5.71	5.17	-1.66
CD(91일)	7.02	6.94	6.87	5.94	5.73	-1.14
CP(91일)	7.24	7.26	7.26	6.66	6.10	-1.16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우량기준물(AA-) 기준

<표 2> 회사채 및 CP의 신용등급별 금리격차 추이

(%P)

		2000.10말	11말	12말	2001.1.15	1말
회사채 ¹⁾	BBB+	1.42	1.44	1.43	1.42	1.43
	BBB-	3.17	3.52	3.69	3.88	4.18
CP ²⁾	A2	0.18	0.18	0.18	0.15	0.15
	A3	0.82	0.85	0.88	0.84	0.84
	B	4.28	4.32	4.35	4.40	4.32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우량 기준물(AA-)과의 금리격차 2) 기준물(A1)과의 금리격차

<표 3> 주가 추이

	10말	11말	12말	2001.1말	2.12일	전년말대비(%)
종합주가지수	514.48	509.23	504.62	617.91	598.78	18.7
코스닥지수	74.68	67.26	52.58	84.36	84.08	59.9

자료 : 한국은행

<표 4> 외국인 주식순매수 추이

(기간중, 억원)

	2000.10	11	12	2001.1.31	
				1.21~31	
주식순매수	-3,277	6,730	4,903	29,635	2,514
매수	39,861	37,177	31,350	72,533	17,039
매도	43,138	30,446	26,447	42,898	14,525

자료 : 한국은행

회사채 및 CP 유통수익률의 신용등급별 금리격차는 전월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CP 시장에서는 1월 들어 기준물(A1)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모든 등급에 걸쳐 축소됐다. <표 2>

2. 주가

1월 들어 주가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부동산자금의 유입 등에 힘입어 큰 폭 반등했다. 이른바 유통성장세를 시현한 것이다. 종합주가지수는 작년 12월 말 504.62에서 금년 1월 말 617.91로,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에 52.58에서 84.36으로 각각 올랐다. 2월 들어 그 동안의 단기급등에 대한 경계감, 미국경기냉각과 우리의 경기둔화 지속 전망 등에 따라 다소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작년 12월중 4,900억에서 금년 1월 중 2조 9,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1월 하순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600선 내외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다. <표 4>

3. 자금흐름

1월중 은행예금은 부가세 납부(5조 1,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대폭적인 감소로 돌아섬에 따라 4,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전월(+6.2조원)에



비해 증가폭 크게 축소됐다.

다만 정기예금은 1년 이상 만기 장기예금을 중심으로 3.9조원 증가했다.

투신사 수신은 MMF(Money Market Funds)*의 급증에 따라 1월중 7조 4,000억원의 증가로 반전했다. 이같은 MMF의 급격한 증가는 연말 인출자금의 재유입에 주로 힘입었으나 최근 시장금리의 큰 폭 하락으로 동 수익률(연5.8~6.0%)이 상대적으로 높아 진데도 기인한 것이다.

* MMF란 고객의 예금을 금리가 높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해 주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이 펀드는 시장금리 동향을 반영하므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할 때 수익률이 높아진다.

은행신탁 수탁고는 개발신탁 만기도래의 일단락,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신노후 생활연금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의 증가세 확대 등으로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2월중 -4.9조원 → 1월중 -0.1조원)

<표 5> 은행대출(신탁포함)¹⁾ 추이

(기간중 증감, 억원)

	2000.8	9	10	11	12	2001.1
은행대출	49,292	62,456	62,531	47,545	-7,848	19,152
(상업어음할인)	-1,075	1,550	-6,600	-3,801	29,543	-30,883
(기업구매자금)	4,356	5,705	6,058	8,070	5,585	6,747
(무역금융)	3,379	-635	2,470	560	-10,406	8,878
(당좌대출)	-2,337	-3,990	8,427	-3,830	-21,386	14,524
일반자금	42,434	73,186	41,729	36,937	-2,866	5,505
신탁대출	-8,251	-9,259	-8,262	-8,650	-12,285	-4,125
계	41,041	53,197	54,269	38,895	-20,133	15,027
기업대출	12,326	4,791	27,969	8,249	-39,620	38,876
(대기업)	-5,106	-3,549	13,646	-1,391	-34,863	30,831
(중소기업)	17,432	8,340	14,323	9,640	-4,757	8,045
가계대출	22,635	18,523	21,741	29,632	21,445	-1,467
공공및기타대출	6,080	29,883	4,559	1,014	-1,958	-22,382

자료 : 한국은행

주 : 1) 부실채권정리, 대출금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CLO 포함

<표 6>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기간중, 억원)

	2000.9	10	11	12	2001.1
회사채발생(순) ¹⁾	4,425	7,474	-6,716	-47,603	4,429
CP발행(순) ²⁾	-3,963	12,475	-8,367	-52,947	53,947
주식발행 ³⁾	9,574	6,231	1,876	11,492	789

자료 : 한국은행

주 : 1) 법정관리, 회회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으로 Primary

CBO 편입분 및 산업은행의 신속인수분을 포함

2) 증권사, 증금사, 은행신탁의 CP 할인액 기준

3)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제외

<표 7> 당좌대출한도소진율¹⁾ 추이

(%)

2000.3	5	7	9	10	11	12.2 ²⁾	2001.1
19.3	21.6	20.4	18.8	21.2	19.9	18.6	17.7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시중은행 기준, 월말 기준

2) 연말 일시적인 당좌대출감축에 따른 교란요인을 감안하여 12.25일 현재 소진율을 이용(12월말은 13.4%)

3 기업자금 동향

1월중 은행의 기업대출(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말 일시 감축분의 재취급(rebound)과

부가세 납부(1.26일)관련 대출수요의 가세 등으로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1월중 은행의 총대출은 1조 5,000억원 증가에 머물렀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대출금이 상환(2조원)되고 가계대출도 연말연초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다. <표 5>

1월중 회사채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4,400억원의 순발행을 기록했다(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에 의한 발행분(7,560억원) 포함).

이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시행 등으로 기업의 신용위험(default risk)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가운데 국고채 유통수익률 급락에 따라 대체 투자수단으로서의 회사채 매입수요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CP도 연말 일시 상환분의 일부가 재발행된 데다 MMF 급증에 따른 투신사 등의 매입수요 증가로 1월중 5조 4,000억원 순발행했다.

특히 그동안 발행에 애로를 겪었던 A3등급의 CP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기등급 업체의 CP발행도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6>

한편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1월 들어 더욱 하락했다. <표 7>

4 기업자금 경색 배경

자금경색이란 곧 신용경색(credit crunch)를 말하고 있다. 신용경색이란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기업이 애로를 겪게 되는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신용경색은 자금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자금의 유통경로가 이상이 있는 경우 일어난다. 현재 우리의 자금경색이란 후자, 즉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화가 원활히 공급되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함에 따라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기업대출을 축소하거나 대출조건을 엄격히 하는 등 운영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첫째,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기준인 10%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였다.

특히 연말에 이 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해 말에는 기업대출보다는 기업에 대해 자금상환을 독촉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그룹의 부도와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등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스위스 바젤에 본부가 있다. 제1차 대전 이후 독일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에 설립되었다.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업무의 관리와 운영이 주업무이다. 한국은 1996년 회원국이 되었다. 1988년 자기자본비율규제 즉, BIS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는 은행이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한다는 것이다. 1998년 은행 퇴출 작업시 이 BIS기준이 적용되었다. 작년에는 은행에 10%가 적용되었다.

기업측면에서 보면, 직·간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퇴조하고 있다. 직접금융시장은 주식시장, 회사채시장과 CP시장으로 대별된다. 직접금융은 1999년 중 2.8조가 상환된 데 이어 2000년 중에도 0.3조가 상환되었다.

개별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에 돌입하면서, 기업로의 자금 유입은 뚝 떨어졌다.

유상증자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규모는 1999년 중 33.4조에서 2000년 중 5.7조로 급감하였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의 유상증자는 1999년 중 2.4조에서 2000년 중 4.5조로 증가하였으나, 이 유상증자를 분기별로 보면, 200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집중되어 1조를 상회하였으나, 마지막 4분기 중에는 1,500억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발행 규모는 1999년 중 29.6조에서 2000년 중 11.2조로 감소하였다.

회사채 발행은 2000년 중 오히려 10.8조가 순상환되었다.

회사채의 주수요자인 투신사의 수신 감소와 금전신탁의 위축과 대기업들의 부채비율 감소 등 수요요인에 따라 회사채시장은 축소되었다. 프라이머리 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채권담보부증권)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7.3조가 발행되었다. 실제 일반회사채는 18.1조가 상환되었으나, 프라이머리 CBO는 7.3조가 발행되어, 회사채 순발행은 10.8조가 된 것이다.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할인은 1999년 중 29.5조와 2000년 중 0.7조가 각각 감소하였다.

간접금융시장에서 은행대출은 연간으로 볼 때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오히려 감소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9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은 각각 1.4조와 16.5조에서 2000년 중 7.2조와 16.2조로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분기별이나 월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1분기에 3.6조대로 증가하였으나, 11월과 12월에 0.1조와 3.4조가 회수되었다.

반면, 가계에 대한 은행대출은

1999년에 19.2조에서 2000년에 26.3조로 증가하였다. 은행권이 기업의 부도·부실에 대한 신뢰저하로 말미암아 가계대출에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전반적인 경기의 하강에다 구조조정이라는 전례 없는 강한 퇴출 위기가 겹치면서 자금의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이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부실을 고리로 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정책과 시장 반응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않자, 정부는 각종 시장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와 순수이론가들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 기업으로 향한 자금의 공급을 재개시켜야만 되었던 것이다.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는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가계와 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 기도 한 실정이다.

먼저, 정부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의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 8일 콜

금리의 목표수준을 5.25%에서 5%로 0.25%p 인하 하였다. 금리인하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 콜금리 인하는 은행의 수신금리 인하를 유발하면, 이것이 은행자금을 제2금융권으로 유도하고 제2금융권이 회사채의 매입을 재개하게 된다는 요지이다. 실물부문에서 콜금리 인하는 기업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을 낮추게 되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 한편, 가계의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경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면도 있다.

- 금융정책과 아울러 재정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하여 금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였다. 세출예산의 약 6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1분기에 3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4대 부문 구조 개혁도 2월말까지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방향을 천명하고 있다.

- 지난해 말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특정 기업의 회사채가 집중적으로 만기 도래할 경우 산업은행이 회사채의 80%를 인수해 주는 제도이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현재 상당

히 호전되고 있다. 각종 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회사채도 다시 거래되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수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경제에 청신호를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이 나아지고 있다. 작년말보다 비교적 크게 오르고 있으며, 고객예탁금도 2조 이상 증가하고 있다.

2월 중순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00선 내외, 코스닥지수는 85선 내외로, 작년말보다 각각 20%, 50% 이상 상승하였다. 주가의 변동이 경제심리에 크나큰 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희망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농협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에 금 금리가 98년 3월의 15%선에서 작년 12월에 7%선, 금년 2월 중 5%선으로 인하되었다. 은행권은 이보다 조금 높지만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출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예대마진이 3%포인트 수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 수익이 나는 예대마진은 4%선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대출자금에 적용되는 금리 일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고채금리와 회사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의 유통수익률은 2월 중순 현재

5%선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기관들이 안정적인 국고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회사채시장 또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시행과 금리 변동에 따른 시중자금의 이동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있어, 산업은행은 2월 중순 현재 0.9조원어치의 회사채를 인수하였고, 2월말까지 0.3조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둘째, 회사채의 주 매매선인 투신, 종금, 신금 등 제2금융권으로 시중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보다 고금리를 주는 제2금융권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중 2.8조원대의 자금이 인출되었던 종합금융회사에 금년 1월에 1.5조원대가 예금되었다. 신용금고의 경우 작년 12월에 1.2조원대가 인출되었으나, 금년 1월에 0.8조원대가 입금되었다.

회사채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금년 1월중에 상장된 일반사채는 작년 동기보다 약 15% 늘어났다. 이 중 무보증채 상장규모는 동기간중 무려 5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작년 말까지 초우량 등급의 회사채만 거래되었으나, 금년들어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BBB등급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채시장에서도 할인율이 낮아지고 B급 이하의 어음도 서서히 유통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나 소비자의 소비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알 수 있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및 소비자심리에 관한 지수도 반등하고 있다. 전경련이 2월 7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작년 12월 중 68.0에서 금년 1월 중 62.7로 하락하였으나, 2월 중 83.0으로 크게 올라갔다. 이 지수는 작년 9월, 10월, 11월 중 각각 104.7, 91.8과 81.0이었다.

*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기업의 실적과 경기의 동향 등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조사하고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로 단기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가계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작년 12월의 64.6에서 금년 1월 69.4를 상승하였다. 소비자평가지수는 작년 6월 98.0 이후 계속 하락하였다.

그리고 6개월 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자기대지수는 금년 1월 89.7로 전월의 82.2에서 올라갔다. 이 지수도 작년 7월의 102.3에서 계속 하락하였다. 두 지수 모두 7개월만에 처음으로 반등하였다.



6 견제와 균형 그리고 경쟁

금융시장 불안은 정부의 의도대로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련의 금융시장 안정화조치와 금융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기업의 자금난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이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충족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진하거나 당초 목표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이 정상궤도에서 진행되지 않는 한편으로 유동성의 공급 증가에 주로 기인한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 등 경기부양성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수년 전 구조조정을 통한 시하고 경기부양에만 치중하면서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켰던 일본의 실패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진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목표와 수단은 거의 다 제시되고 있지만, 사회여건상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실천하느냐하는 단계에서 있는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이 해결되어야 한다. 대우그룹의 부도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유자, 경영자, 회계사, 금융기관 등의 책임 부재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해독을 미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분식회계로 대표되는 기업과 관계기관의 종사자들간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독,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책당국은 기업과 금융이 필요로 하는 시장기반의 구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급적 직접수단을 사용하는 시장개입보다 간접수단에 의한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시장개입을 하더라도 정책은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번을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차단함과 동시에 대내외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기법의 고도화와 효율성제고를 통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기업이 단순히 외양적인 덩치키우기에 급급한 경영을 우선시하였다. 무분별한 외형 확장은 부채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부실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누적되어 온 부실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대량퇴출과 대량실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이 분식회계와 특혜라는 온실을 탈피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갖춘 체제로 복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기업풍토로의 전환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진 우월적인 지배관계가 정리되면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 경쟁적 시장질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